

## 2021년 제2차 이사회 회의결과

- ☐ 일 시 : 2021. 2. 24(수) 14:00~16:00
- ☐ 장 소 :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회의실
- ☐ 참석인원 : 25명
  - 회 장 : 임대기
  - 부 회 장 : 백옥자, 최경용, 최경열, 윤여춘, 김정봉, 심재용, 김동주
  - 전무이사 : 최인해
  - 이 사 : 김승일, 문봉기, 이은자, 김재용, 이진택, 박이현, 신현경, 박병익, 송문규, 김성진, 강조한, 이윤진, 이도훈, 김방출,
  - 감 사 : 전용환, 정우창
- ☐ 성원보고 및 개식통고 : 사회자
- ☐ 개회선언 : 임대기 회장
  - 재적이사 28명중 이사 23명 참석으로 성원됨.

### ☐ 취임사 : 임대기 회장

안녕하십니까?

제 24대 대한육상연맹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임대기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빛은 어둠에서 시작되고, 봄은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35년만의 추위로 기승을 부리던 겨울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출발하기 참 좋은 날 오늘, 출발에 앞서 저는,

제 24기 대한육상연맹의 운영방침이 될, 세 가지 정신과 하나의 지향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은 땅을 딛고 하늘을 나는 운동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신은, '함께'입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함께의 정신'으로 뭉쳐야겠습니다.

마치 한 몸의 두 다리처럼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수와 지도자와 집행부가 '함께의 정신'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마치 한 몸에 있는 허파와 심장과 위장처럼 자신을 위하듯 서로를 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파, 심장, 위장은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건강해도 전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육상은 또한, 숨쉬기 운동입니다.

몸이라는 악기로, 호흡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정신은, '호흡'입니다.

그런데 호흡에는 때가 있습니다.

꿈나무의 씨를 뿌릴 때의 호흡과, 경기력의 땀을 흘릴 때의 호흡과,  
대회에서 수확을 거둘 때의 호흡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먼저,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릴 때의 호흡은 See the big picture!

크게 보는 긴 호흡이어야 합니다.

키즈 프로그램, 육상기록인정프로그램, 육상교육훈련센터 사업 등 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대표선수로 키워가는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조금 늦더라도 큰 그림을 보고 긴 호흡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력의 땀을 흘릴 때의 호흡은 Follow the rhythm!

훈련의 리듬에 따라, 즐기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벼를 빨리 키우려고 벼 줄기를 억지로 뽑아 올리면  
빨리 크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부상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려 함에서 옵니다.

훈련의 목표는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즐기는 자만이 근육을 한 가닥 한 가닥 빠짐없이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근육전체를 움직이는 회로 또한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에서 수확을 거둘 때의 호흡은 Keep calm & do the best!

담담하게 최선을 다하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경기에서 목표로 해야 하는 기록은 상대선수보다 더 나은 기록이 아니라 자기  
몸의 최고 기록입니다.

즉, 경기는 다른 선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육체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경기력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정신'으로 보면,

우리 앞에는 지금 3가지 종류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 필요한 호흡은 담담하게 최선을 다하는 호흡입니다.

닭은 기량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의 오레곤 세계육상선수권이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에 필요한 호흡은  
훈련의 리듬을 즐기는 호흡입니다. 마무리의 땀을, 즐겁게 흘리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의 예천 아시아 주니어선수권이나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호흡은 크게 보는 긴 호흡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육상은 또한, 흐름을 타는 운동입니다.

중력의 흐름을 타고 바람의 흐름을 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정신은, '흐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3차 산업혁명 시기 때,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는데도 굳이 타자기를 쓰는愚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 육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삼성라이온즈의 경험이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화의 어려움도 경험했고, 그 해법도 경험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문명에 있어 '과학화'의 흐름이었다면

두 번째 흐름은 문화에 있어 '평등과 정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흐름이라기보다 쓰나미에 가깝습니다.

성폭력,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 평등과 정의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누구라도 존재와 명예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응징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의 흐름은, 코로나19라는 눈앞의 흐름입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방역상황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회 방역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회 준비에 필요한, 비대면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흐름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개인 방송국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과 공유'의 흐름입니다.

BTS가 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도 한 번 타봅시다. 앞으로 이런 흐름을 타겠다는 의욕도 있고, 스타성이 있는 육상 선수들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사랑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호흡', '흐름'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공유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기록일까요? 세계 대회 성적일까요? 성취감일까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곳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1936년, 일제 강점기,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는 무엇을 바라보고 뛰었을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여러분이 다들 공감하고 있을,

비인기 등 우리 육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 바라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그 가족들도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후원하는 기업들도 국민이고,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디움에서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도, 미디어를 통해 응원하는  
시청자들도 모두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줌으로써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국민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먼저 국민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어떻게 하면 육상이 국민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육상을 하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지를 고민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노력이 국민들의 가슴에 전달될 때,

국민들은 우리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돌려줄 것이고,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은 그 자체로 우리 육상의 든든한 저변이 되고,  
우리의 경기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다들 육상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들이 화려한 파도라면, 육상은 파도 밑에서 바다를 움직이는  
조류처럼 모든 종목의 기초가 되는 저력입니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파도만 보고 우리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파도 밑에 있는 우리의 저력을 봅시다. 그리고 '함께', '호흡', '흐름'이라  
는 세 가지 정신을 공유하고, 국민이라는 한 곳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저력은, 바다를 움직이는 소용돌이가 될 것입니다.

비인기 스포츠라는 설움을 떨쳐내고, 우리 육상을 모든 스포츠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상인 여러분!

우리 함께, 바람이 불면 대한육상연맹이라는 배의 돛이 됩시다.

얼음이 얼면 대한육상연맹號의 길을 여는 쇄빙선이 됩시다.

함께 호흡하며 흐름을 탑시다

감사합니다.

☐ 집행부 임원소개 및 임명장 수여식

☐ 안건심의

#### ◆ 제 1 호 :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사회자로부터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2 호 :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건

사회자로부터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3 호 : 고문 위촉의 건

사회자로부터 [고문 위촉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4 호 : 전국연맹체 임원 인준의 건

사회자로부터 [전국연맹체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5 호 : 전임감독 임명 추천의 건

사회자로부터 [전임감독 임명 추천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마무리 말씀 : 임대기 회장

오늘 정식으로 집행부가 출범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좋았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하여 모두가 생각하는 육상발전의 꿈을 이루어가길 희망합니다.

임기 4년 동안에 국민들 마음속에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연맹과 정부기관,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한국 육상은 한층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 회 16:00

기록 : 김상우 주임